

잡지 말뭉치에 나타난 한국의 주거 감성 분석*

오 윤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방법
 1. 주거문화 말뭉치
 2. 연구 절차와 방법
- III. 주거문화 말뭉치에서의 형용사 사용 양상
 1.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양적 특성
 2.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잡지 말뭉치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의 주거 감성의 실체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70년~2015년 주요 대중잡지의 주거 관련 기사로 구성된 주거문화 말뭉치로부터 형용사를 추출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의미분류를 통해 시기별 어휘 목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오윤정(2017)에서 구축한 말뭉치로 『주부생활(STYLER)』, 『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원』, 『행복이가득한집』 총 5종의 대중잡지 기사로 구성된 말뭉치이다. 말뭉치는 해당 잡지들을 대상으로 1970~2015년을 범위로 하여 5년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S1A5B5A07093765)

** 吳翰貞, 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강사, oyj34@ewha.ac.kr
투고일: 2020. 11. 11. 심사완료일: 2020. 11. 29. 게재확정일: 2020. 12. 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173>

간격의 3, 6, 9, 12월 호 기사를 수집하여 구축된 것으로 총 565,824 어절 규모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말뭉치의 형용사 어휘만을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각 어휘가 지닌 기본적인 빈도 정보 및 ‘Kullback-Leibler Divergence’ 공식을 활용한 양적 분석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의 분류 체계를 활용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집중적으로 출현한 어휘가 의미범주별로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간 특별히 주목하지 못했던 문화 영역 특수목적 말뭉치를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점과 추상적인 영역인 감성을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어휘라는 구체적 실체의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주거문화, 감성, 말뭉치 분석, 형용사, 의미분류, 잡지

I. 머리말

한국의 주거문화는 매우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하에 전개되어 온 영역으로서 한국의 정서 또는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문화적 텍스트로서 연구의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 재건의 과정에서 한국은 국가적 가난의 극복과 경제 개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주거와 관련한 영역은 거주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생적인 변화보다는 국가의 계획과 정책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사고파는 자산이자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노년의 윤택한 삶을 위한 대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혼, 출산과 같은 삶의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집과 관련하여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사실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어딘가에 ‘거주(dwelling)’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이다. 주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모든 인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특정 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한 매우 흥미롭고도 유용한 대상이 된다. 특히, ‘어떠한 공간에 머물고 싶은가’와 관련한 개인의 욕망은 그가 주어진 공간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에 고스란히 표출되게 되는데,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집은 한 개인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공간 중 가장 친근하고도 내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각 개인의 근본적인 욕망의 구성체이자 감성 표출의 무대이므로 인간의 감성과 문화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이라는 대상,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 안에서의 삶을 둘러싼 한국인의 감성에 대한 양적 접근으로서 언어 텍스트의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문화와 사회적 실체의 안내자이며, 인간의 지식 체계를 가시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수단이므로 언어를 통해 인간 삶의 면면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을 조직화하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¹⁾ 그러므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알고자 할 때 여러 시대를 거쳐 축적해온 한국인의 언어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추상적인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언어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어휘’는 언어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공통적 경험과 문화를 내포하는 상징 그 자체이므로 한 단어와 그 단어가 맺는 여러 단어 들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특정 문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서와 가치체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 텍스트인 잡지는 사회여론 형성 및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체로서, 잡지에 표상된 주거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주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잡지에 소개된 집과 거주인의 삶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이상적인 주거 전형으로 받아들여지며 닮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한다.²⁾ 이렇듯 독자

1) 강소영,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문화지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이화어문논집』 24-25, 2007, 181쪽.

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잡지는 동시에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주거와 관련한 잡지 기사를 분석하는 작업은 집과 관련한 개인의 욕망과 정서의 실체를 보다 직간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된다.

그간 한국의 주거 영역과 관련한 논의들은 주제 측면에 있어서 주로 '주택'이라는 물리적 차원의 집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도 주거 공간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선행 문헌 탐구 방식의 논의에 그 관심이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어 인간의 이상 또는 욕망이 주거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³⁾

구체적으로, 주거문화 관련 논의들은 주로 주택의 평면도 분석을 통한 공간의 구조 변화나 주택의 양식(style) 및 인테리어의 변화 등 공간의 물리적 변천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선행 문헌이나 자료의 질적 탐구에 의존함으로써 주택 관련 법제나 정책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주거공간의 외연적 관계에 집중된⁴⁾ 측면이 있다. 물론, 가족 구성

-
- 2) 우신구·정순원, 「잡지의 주거재현방식에 관한 연구-건축잡지와 여성잡지의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2007, 1~10쪽.
 - 3) 이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주거문화 관련 선행 문헌들의 주제어 분석을 실시한 김영주 외(2013)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연구주제가 물리적 차원의 주거계획 및 성능 관련 주제에 집중되었고, 1990년대에는 주거계획과 디자인 관련 주제와 함께 공유공간에 대한 논의, 200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커뮤니티 공간, 자연경관 등과 관련한 연구주제가 많이 나타나 그간 주로 공간의 물리적 차원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4) 주택의 평면도 및 입면도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전남일, 2010; 서원기·전봉희, 2009), 건축물의 양식(style) 측면에서 주택을 15개 유형으로 정리하고 변천 양상을 살펴본 연구(임창복, 2011), 도시주거의 근대화 과정과 관련하여 주거용 연료 전환에 의한 평면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순희·박용환, 1997), 거실 인테리어의 변천을 살펴본 연구(최승우·김형우, 2009), 한국의 근대적 주거환경을 근대화 혹은

및 구조의 변화와 가족 관계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주거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⁵⁾ 아파트에 초점을 두어 현대인의 변화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일상에 대한 욕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의한 연구⁶⁾, 주거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조명한 연구⁷⁾ 등 일부 논의에서는 물리적 주거 공간과 거주자의 삶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왔는지, 그 변화를 추동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인간 정서와 문화적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 역시 그 방법론으로 문헌의 탐구 또는 공간의 이미지와 같은 시각자료에 대한 주관적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유나 외(201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김유나 외(2013)은 정성적 내용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정량적 내용분석을 통해 전원생활 및 전원주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다. 1990년~2012년까지의 약 20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학술논문, 전문잡지,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한국의 전원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 시기를 태동기(1990~1996), 침체기(1997~2002), 회복기(2003~2008), 발전기(2009~2012)로 정리하고 각 시기의 변화 및 그러한 변화를 추동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당 연구는 일부 자료에 한해 정량적 어휘 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 약 20년의 범위를 대상으로 전원생활 및 전원주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변화되어 온 기형적 구조의 산물로 바라본 연구(전남일 외, 2009)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참조.

5)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6) 박진희, 「‘주거 공간’과 ‘일상’의 관계 맺기-주거 공간에 담긴 현대인의 일상, 그 변화와 의미 들여다보기」, 『시민과세계』 24, 2014, 258~273쪽.

7) 은난순, 「1980년대 이후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재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004, 59~73쪽.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다만, 전체 분석 자료에 일관적으로 정량적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명사에 한정하여 1차적 빈도만을 검토하고 문장의 또 다른 중요 요소인 용언은 배제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의 앞선 연구로서 오윤정(2017)에서는 한국 현대 주거문화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1970년~2015년 기간에 출간된 대중잡지 5종의 주거 관련 기사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량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방법에 따라 명사를 분석해 본 결과 중요 어휘 그룹의 의미적 변화에 있어서 대략 1970~1980, 1985~1995, 2000~2005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 변곡점들이 포착되었다. 오윤정(2017)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보다 확장된 해석을 진행한 오윤정(2020)에서는 양적 변화 양상의 구체적 측면들을 검토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세 시기의 명사 어휘들이 각각 ‘공간의 물리적 개선(시설의 수리와 개조)’,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 사업과 경제적 활동’, ‘공간의 질적 개선(꾸밈)’으로 맥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 정부의 주택 건설 관련 시책과 그에 따른 주택 수 변화라는 요인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앞선 두 연구는 주거문화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명사에 한정하여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사를 분석한 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주거문화 말뭉치에 출현한 형용사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 주거 감성의 실체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용사는 내용어(content word)⁸⁾에 속하는 전형적인 부류 중 하나로서 문장의 의미에 관여

8) ‘단어’를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내용어(content word)와 내용어를 연관시키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나누어 생각할 때,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이 문장의 의미에 관여하는 어휘 부류는 내용어이고 그러한 내용어를 연결해주는 ‘-게’, ‘-어’ 등과

하는 품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용사가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수식함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감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선 연구에서 명사 어휘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거문화와 관련된 ‘무엇’에 집중하였다면 이 연구는 주거문화 말뭉치의 형용사 어휘에 집중하여 ‘어떻게’에 대하여 관찰하는 과정으로서 한국인이 주거와 관련된 영역 내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며 공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중잡지 기사로 구축한 주거문화 말뭉치로부터 형용사 어휘를 추출하고 어휘의 유형과 빈도의 양적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잡지 텍스트에 기반한 주거문화 말뭉치에서 형용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형용사를 어휘의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해 봄으로써 주거문화 말뭉치 속 주요 형용사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주거문화 말뭉치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중잡지 주거 관련 기사로 구축된 주거문화 말뭉치이다.⁹⁾ 주거문화 말뭉치는 주거문화 연구를 위해 말뭉치 구축에 있어서 그

같은 부류는 기능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어 중에서도 앞선 논의들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명사는 사물을 나타내고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서술하는 기능, 형용사는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임지룡,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2018, 359-362쪽 참조.

9) 필자의 박사논문 오윤정(2017)의 말뭉치로 오윤정(2017), Yoonjung Oh(2018), 오윤정(2020)과 본 논문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었다. 오윤정, 「여성잡

주제 범위를 주거 관련 영역에 한정하여 구축한 말뚝치라는 점에서 특수목적 말뚝치라고 할 수 있다. 말뚝치의 고빈도 어휘에 ‘집, 공간, 만들다, 가구, 주택, 아파트, 거실, 분위기, 꾸미다, 방, 사람, 벽, 곳, 살다, 디자인, 제품, 느낌, 지역, 실내, 컬러, 인테리어’ 등 각종 주거문화 관련 어휘들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문화 말뚝치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잡지는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이다. 잡지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유행 경향과 전반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미의식이나 생활상, 혹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 또는 특정 시대의 문화적 수준까지도 알게 해준다. 무엇보다 잡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취향을 반영하는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속하게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잡지는 매우 유용한 매체가 된다.¹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거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잡지 중에서도 여성잡지나 생활문화지와 같은 대중잡지를 활용하여 구축한 말뚝치를 분석 대상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건축전문잡지의 경우 거주자가 공간 속에서 영위해 나가는 일상의 구체적인 측면보다는 건축가가 만든 작품으로서의 물리적 주택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소비자로서의 독자보다는 새로운 생산자로서의 독자를 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중잡지는 주거 공간 속에

지 말뚝치에 나타난 한국 주거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Yoon jung Oh,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Residential Culture in the Corpus of Women’s magazine,” *Collana di Studi Coreani* vol.3, Roma : Aracne editrice, 2018, pp. 75-105; 오윤정, 「주거문화 말뚝치를 통해 본 어휘 변천: 명사 어휘의 의미분류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24-3, 2020, 27-46쪽 참조.

10) 오진환, 『잡지발전 세미나 자료집』, 한국잡지협회 부설 한국잡지연구소, 1990; 정순원·우신구, 「잡지를 통해 전달되는 주택의 인식에 대한 연구-건축전문잡지와 여성생활문화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04, 131~134쪽; 우신구·정순원, 앞의 논문, 2007, 1~10쪽.

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과 흔적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일상문화로서의 주거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말뭉치는 1970년~2015년(45년) 기간 범위에 출간된 대중잡지 5종의 주거 관련 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축된 말뭉치이다. 자료 구축에 활용된 5종의 잡지들은 구독률 및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잡지들 중 기사 수집 및 구축이 비교적 용이했던 잡지들로,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원>, <행복이 가득한 집>이다. <주부생활>과 <여성동아>의 경우 전체 기간을 포괄하는 중심 자료로서, <여성중앙>, <여원>, <행복이 가득한 집>은 일부 시기들의 보충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연구 대상 기간인 1970~2015년(45년)을 5년 간격으로 하고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3, 6, 9, 12월 호를 범위로 하였으며, 각 호의 주거문화 항목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별도의 섹션을 통해 특집으로 다뤄진 주거 관련 기사, 유명인의 집 소개, 그밖의 집과 주거생활 관련 내용들이 다뤄진 경우 해당 기사들을 모두 수집함으로써 설정한 범위 내에서 게재된 모든 주거 관련 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기사수로는 749건, 어절 수로는 총 565,824 어절 규모이다.¹²⁾ 45년이라는 기간을 아우르는 하나의

11) 대상 기간에 출간된 모든 잡지의 모든 기사를 수집하는 대신 샘플링 방식을 취하였지만, 자의적 선별을 배제하기 위해 5년 간격의 3, 6, 9, 12월 호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수집 대상으로 삼은 출간본 내의 모든 주거 관련 기사를 수집했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는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2) 이러한 규모는 국가 주도로 구축된 범용말뭉치인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나 그밖의 연구 단체에서 구축한 대규모 말뭉치들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극히 작은 규모이다. 다만, 본 말뭉치는 잡지라는 특정 장르, 그중에서도 주거문화라는 집약적 주제에 한정하여 구성된 특수목적 말뭉치라는 점에서 볼 때 주거문화 영역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언어 사용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주제 영역 내의 담화 분석을 위해 소규모 말뭉치를 구축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소규모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김하수

통시말뭉치와 이를 5년 간격으로 분절한 10개의 공시 말뭉치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시말뭉치와 더불어 유태거(UTagger)¹³⁾를 활용해 도출한 형태소 분석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말뭉치의 구성 및 규모에 대한 세부 정보이다.

<표 1> 여성잡지 주거문화 말뭉치의 구성

년도	원시말뭉치		형태소 분석 말뭉치 ¹⁴⁾	
	기사	어절	type	token
1970	55	64,103	12,563	136,682
1975	48	38,732	8,812	84,360
1980	57	39,956	8,916	87,508
1985	60	52,589	10,298	116,853
1990	72	89,795	13,440	200,186
1995	90	60,111	10,139	129,272
2000	94	54,412	8,215	115,242
2005	116	54,262	8,408	112,556
2010	83	57,523	10,254	117,580
2015	74	54,341	9,905	110,778
합계	749	565,824	100,950 ¹⁵⁾	1,211,017

외(2013)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적 담화 분석을 위해 각 후보자별로 구어의 경우 약 6~7천 어절, 문어의 경우 약 3~4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손현정·이재윤(2014)에서도 특정 정치인 관련 신문기사 말뭉치 205,352어절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 13) 유태거(UTagger)는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KLPLAB)에서 제작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이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의 품사 체계에 준한 형태소 품사 표지를 적용한다. 이의어 분별이 가능하고 약 96.5%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http://nlplab.ulsan.ac.kr>).
- 14) type(타입)은 사용 어휘의 유형을 의미하고, token(토큰)은 어휘가 특정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빈도를 뜻한다. 이정민 외, 『언어학사전』, 박영사, 2000 참조.
- 15) 본 합계는 같은 어휘일지라도 서로 다른 연도의 말뭉치에 속한 경우 별도의 형태소로 취급하여 도출한 합계이다. 만약 각 시기의 말뭉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값을

<표 1>의 형태소분석 말뭉치로부터 불용어(stop word)를 제외하고, 문장의 의미 구성에 중대하게 관여하는 내용어(content words) 중 형용사를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는 어휘 유형(type) 기준으로는 1,518개, 어휘 구현(token) 기준으로는 51,485개 규모이다.

2. 연구 절차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문화 말뭉치의 형용사 어휘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주거 감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말뭉치에 속해 있는 수많은 형용사에서 어느 형용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의 과정은 분석 대상으로 할 형용사의 선정과 선정된 형용사의 분석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분석 대상 형용사의 선정 과정에서는 각 시기별로 차별적 출현 양상을 보이는 형용사들을 목록화하였다. 분석 대상 말뭉치가 1970~2015년을 범위로 하여 5년 단위의 10개 말뭉치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총 10개의 시기별 목록이 구축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추출한 형용사 목록의 분석 방법으로서 어휘를 의미 기준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차별적 출현 어휘 추출

차별적 출현 어휘¹⁶⁾를 추출하기 위해 ‘Kullback-Leibler 다이버전스 공

제외하면 type 합계는 36,715이 된다.

- 16) 특정 말뭉치에서 다른 말뭉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자주 출현하는 어휘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차별어’로 명칭하고 ‘말뭉치에서 다른 말뭉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자주 출현하는 개념어’로서 어휘 사용의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 주는 어휘로 정의한 바 있다. 김하수 외, 「정치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시론」, 『담화와인지』 20-1, 2013, 79~111쪽; 손현정·이재운, 『담화의 언어정보학적 탐구』, 박이정, 2014 참조.

식17)'을 활용하여 말뭉치 개념어 목록 내의 개별 어휘들이 다른 말뭉치 어휘들과의 비교적 차원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을 확인한다.

서로 다른 말뭉치에서의 특정 어휘가 지니는 다이버전스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어휘가 출현한 횟수 자체인 절대빈도와 그것을 기반으로 산출한 상대빈도, 전체 목록의 규모 정보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어휘 W 가 특정 말뭉치 A 에서 출현할 확률: $q_A(W)$
- 어휘 W 가 모든 말뭉치에서 출현할 확률의 평균: $r(W)$
- 다이버전스 값: $D_A(q_A \parallel r)$

$$\Rightarrow D_A(q_A \parallel r) = q_A(W) \times \log \frac{q_A(W)}{r(W)}$$

다이버전스 값은 하나의 어휘가 말뭉치 내에서 다른 어휘들에 비하여

17)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에서 다른 시기에 비하여 자주 사용된 어휘의 선별을 위해 확률 분포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다이버전스 값을 활용한다. 김하수 외(2013)에서는 이를 통해 선별되는 어휘들은 여러 연구에서 log-likelihood나 chi-square를 사용한 keyness 값을 기준으로 추출하는 핵심어(keyword)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값의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log-likelihood나 chi-square를 통한 핵심어(keyword) 분석은 대상 자료에서의 어휘 분포가 특정한 확률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때의 참조코퍼스(reference corpus)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자료여야만 한다. 그러나 다이버전스 공식은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자료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말뭉치는 45년을 범위로 한 하나의 통시말뭉치이자 10개의 하위말뭉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하위말뭉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적 출현 어휘 추출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이버전스 공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김하수 외, 앞의 논문, 2013, 82~83쪽; 손현정·이재운, 앞의 책, 2014; 오윤정, 앞의 논문, 2017; 오윤정, 앞의 논문, 2020 참조.

얼마나 많고 적게 출현하는지에 대한 출현 비율인 상대빈도와는 달리, 한 어휘의 말뭉치 내 출현 빈도 대비 다른 참조 말뭉치들에서의 출현 비율의 상대적인 값이다. 다이버전스 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시기 말뭉치가 지닌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양상을 매우 잘 드러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지니는 어휘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별 어휘의 다이버전스 값을 도출하였고, 각 시기별로 다이버전스 값 기준 상위에 있는 50개씩의 형용사를 차별적 출현 어휘로서 목록화하여 시기별 말뭉치의 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의미분류 체계에 의한 분류

본 논문에서 의미분류 과정의 목적은 어휘를 의미적 기준에 의해 ‘범주화’하는 것이다. 범주화는 현상세계를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 파악하는 장치이다.¹⁸⁾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분류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이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범주화 과정은 말뭉치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연구 대상 말뭉치가 주거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특수목적 말뭉치라는 점에서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에 앞선 과정에서 추출한 시기별 차별적 출현 형용사 목록을 대상으로 의미분류를 시도하였다.

특정 어휘가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세계 내의 개념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한 시소러스 체계 내에서 어떤 측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의미분류 과정은 양적 빈도를 기준으로 단순히 나열된 대규모 어휘 집합으로부터 해석의 여지가 있는 특징적인 문화적 맥락을 발견하는 작업으로서, 특정 범주에 특별히 어휘 출현이 집중되었을 경우 해당 범주는 그 시기의 문화와 보다

18)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 1997; 김태수, 『분류의 이해』,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분류를 위해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1964)¹⁹⁾의 분류체계와 해당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분류한 『일한분류어휘비교』(2010)²⁰⁾를 활용하였다. 분류어휘표의 분류체계는 ‘류, 부문, 중항목, 분류항목, 단락, 행, 분류어’의 총 7단계의 구조로 되어있다. 우선, 첫 단계인 ‘류’는 품사 기준에 의한 분류 단계이다. ‘체언류, 용언류, 상의류, 기타류’의 네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은 품사체계 상의 하위 요소들로 범주화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문’이다. 5개의 부문, 즉 ‘추상적 관계, 인간활동의 주체, 인간활동-정신 및 행위, 생산물 및 용구, 자연물 및 자연현상’으로 나뉘게 된다. 이후 각 부문은 5~10개의 ‘중항목’으로 나뉘는 뒤 다시 ‘분류항목’으로 구분된다. 이하의 ‘단락’과 ‘행’은 의미의 유사성과 친소성에 따른 배열과 배치의 구분을 의미한다. 하나의 어휘는 각 단계를 거쳐 분류되어 첫 단계에서 부여된 정수에서 시작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이어지는 일련번호와 단락 구분 번호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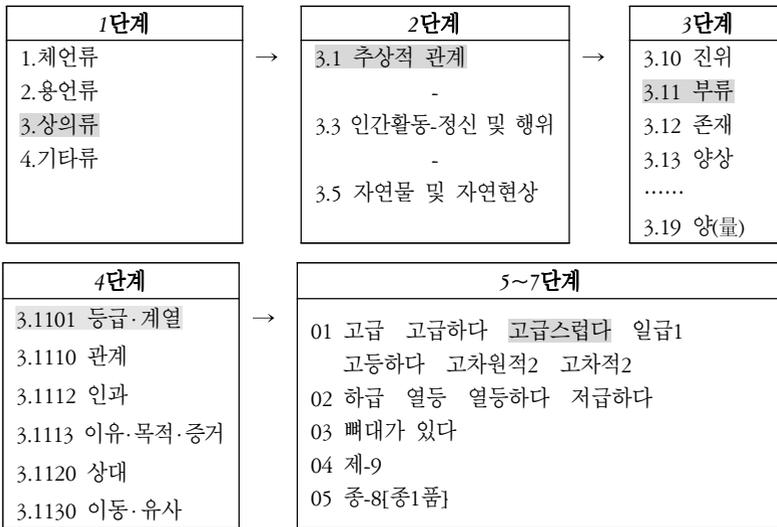
상의 류의 경우는 1차 단계인 품사 분류 단계에서 정수 ‘3’의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2차 단계인 부문 분류 단계에서는 ‘추상적 관계’, ‘정신 및 행위’,

19)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1964)는 일본어 단어를 의미분류하여 일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소러스이다. 품사 분류가 1차 분류로 되어 있고, 각 품사 간 의미가 유사한 것들은 동일한 코드 체계를 갖고 있어 상호 검색이 가능하며, 세부 항목 내의 분류어는 의미의 유사성, 친소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분류하여 배치한 시소러스로, 오랜 기간 연구 대상으로서, 동시에 연구를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장원재, 「현대 한일 동형한자어의 의미분야 형성-소분류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8, 2005, 93~114쪽; 한유석, 『일한 분류어휘비교』, 한국문화사, 2010 참조.

20) 『일한분류어휘비교』(2010)은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1964)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분류한 뒤 일본어와 한국어를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병렬배치한 자료이다. 출판된 연구물로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어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이자 도구로서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현상’ 3개의 부문으로 분리되어 각 부문에 해당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의 번호를 갖게 되며, 이후 중항목, 분류항목, 단락, 행, 분류어 단계의 분류 과정을 거쳐 각각의 분류번호로 표현되게 된다.²¹⁾

예를 들어, 상기 분류체계의 분류 항목 일람에 의거하여 상의 류의 형용사에 해당되는 ‘고급스럽다’라는 어휘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분류되어 최종 ‘3.1101-01’이라는 고유 번호로 표시된다.



<그림 1> 의미 분류체계에 의한 분류 예시(어휘 ‘고급스럽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형용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분류체계 단계 중에서 품사 구분 단계는 제외하였고, 어휘 맥락의 파악을 위한 범주화

21) 분류어휘표의 ‘류’로 표현되는 각각의 품사는 그 특성에 따라 특정 분류 범주들에서는 분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체언류가 분포하는 ‘인간활동의 주체’ 부문과 ‘생산물 및 용구’ 부문에는 형용사가 분포하지 않는다.

가 목적이므로 세부 분류 단계인 4~7단계는 분류를 위한 참조 도구로서만 활용하였다(그림 1). 이에 본문에는 2~3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결과물이 제시된다.

이 과정의 의미는 출현비율 정보만을 지닌 채 나열되어 있는 개별 어휘를 개념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은 각 시기에 어떤 범주의 어휘들이 차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것의 함의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해석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범용 시소러스를 활용한 의미적 분류는 개별 차별어가 전체 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범주화된 각각의 차별어 그룹들이 특정 시기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Ⅲ.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사용 양상

1.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양적 특성

1) 전체 형용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형용사를 추출하고 각 형용사 어휘들이 말뭉치 내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말뭉치 어휘의 형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내용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내용어의 각 품사별 어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거문화 말뭉치 내용어의 품사별 어휘 규모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합계
타입(type)	20,054 64%	5,085 16%	4,549 15%	1,518 5%	31,207 100%
토큰(token)	307,924 63%	17,555 4%	115,229 23%	51,485 10%	492,193 100%
타입/토큰 (type token ratio)	0.07	0.29	0.04	0.03	

위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네 품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사는 명사이며, 총 20,054개 유형의 어휘가 307,924회 빈도로 누적 사용되었고 이는 내용어 목록 전체에서 각각 64%와 63%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어휘의 유형과 반복 사용의 비율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와 같은 유형의 텍스트가 보이는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²²⁾ 어휘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명사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순으로 각각 16%, 15%,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사, 형용사, 고유명사 순으로 각각 23%, 10%, 4%를 차지한다.

이를 어휘의 유형 대비 사용의 빈도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유명사가 다른 품사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른 품사에 비하여 고유명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명사, 동사, 형용사 순이다. 일반명사의 경우 고유명사에 비해서는 낮은 값이지만 동사, 형용사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동사와 형용사는 각각 0.04와 0.03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여 명사류에 비하여

22) 김일환, 「텍스트 유형과 어휘의 사용 빈도」, 『언어와 정보사회』 19, 2013, 161~201쪽.

적은 유형의 어휘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어휘의 반복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형용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유형의 어휘가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시기별 형용사

주거문화 말뭉치는 시기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전체 말뭉치와 1970~2015년 기간을 범위로 하여 5년 간격을 기준으로 구성된 10개의 하위 말뭉치로 나뉘어 있다. 앞에서 형용사의 사용을 내용어의 다른 품사들과 비교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형용사의 사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시기별 형용사 사용의 양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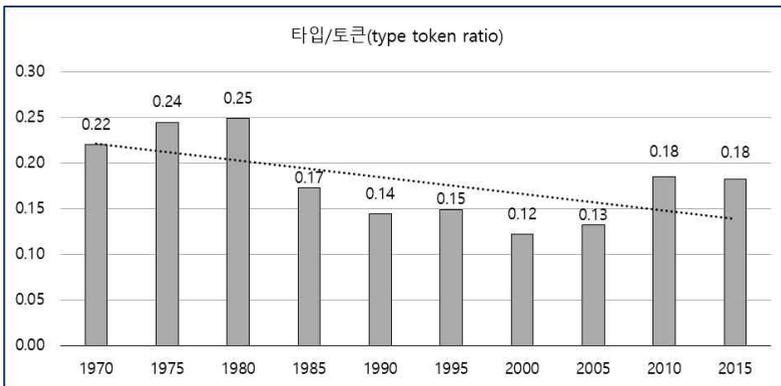
<표 3> 시기별 형용사 어휘 규모²³⁾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타입 (type)	771 7%	502 7%	493 7%	482 6%	666 6%	572 7%	492 7%	481 7%	591 7%	489 6%
토큰 (token)	3,499 8%	2,052 7%	1,982 8%	2,782 7%	4,618 7%	3,851 6%	4,044 7%	3,644 6%	3,201 6%	2,686 7%
타입/토큰 (type token ratio)	0.22	0.24	0.25	0.17	0.14	0.15	0.12	0.13	0.18	0.18

위의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각 시기별 목록에서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7%정도이다. 말뭉치에서의 형용사 사용 규모는 시기

23) 제시한 표의 각 ‘%’는 각 시기별 말뭉치의 내용어 4개 품사(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목록 내에서 다른 품사들 대비 형용사 어휘의 총 유형 수와 사용 빈도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다.

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율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유형 대비 사용 빈도의 비율²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의 점선으로 표현된 추세선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기간 범위에서의 추세 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1980년 구간에서는 증가하다가 1985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형용사 어휘의 유형 대비 사용 빈도 추이

유형 대비 빈도의 비율 수치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1970~1980년 세 시기의 경우 0.21~0.25 범위의 구간에 위치하여 전체 기간 중 형용사가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1985, 2010, 2015년 세 시기의 수치는 0.16~0.20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0~1980년 구간 보다는

24) 코퍼스 통계학의 기본적인 통계 중 하나로 텍스트에 얼마만큼 다양한 어휘가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어휘 다양성이 큰 것이고, 1에서 낮아질수록 그만큼 어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지만 비교적 다양한 형용사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90~2005년의 경우 0.10~0.15 범위에 위치하여 다른 시기들에 비하여 사용된 형용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반복적인 사용 경향이 더 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표 1>을 통해 제시했던 것과 같이 각 말뭉치의 규모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표 3>의 시기별 말뭉치 각각에서의 형용사 비율은 어휘의 유형과 빈도 차원 모두에서 개별 시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유형 대비 사용 빈도의 비율은 시기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그 차이가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인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니라 인접 시기와 수치상 근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각 비율 수치 증감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구분해 보면, 제1시기(1970~1980), 제2시기(1985~2005), 제3시기(2010~2015) 총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타입/토큰비율이 시간 변수 보다는 텍스트 크기와 장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⁵⁾, <표 3>의 결과가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말뭉치가 기반하고 있는 잡지 기사들에서 다뤄진 텍스트의 주제 맥락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윤정(2017)과 오윤정(2020)에서 제시하였듯이 명사 출현 양상은 의미상 1970~1980, 1985~1995, 2000~2015 세 시기로 구별되고, 각각은 '시설 수리와 개량 차원의 물리적 개선', '주택 매매와 소유를 둘러싼 경제적·정책적 요소', '집 꾸밈 차원의 질적 개선' 맥락에 집중되었다. 1985년 기점으로 형용사의 타입/토큰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매매 및 소유 행위, 그러한 행위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 및 입지 환경 관련 명사를 주제어로 하는 맥락에서는 다양한 형용사 사용의 필요성이 비교적 작았을

25)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언어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토니 매케너리·앤드류 하디, 최재웅 역, 『코퍼스 언어학: 방법·이론·실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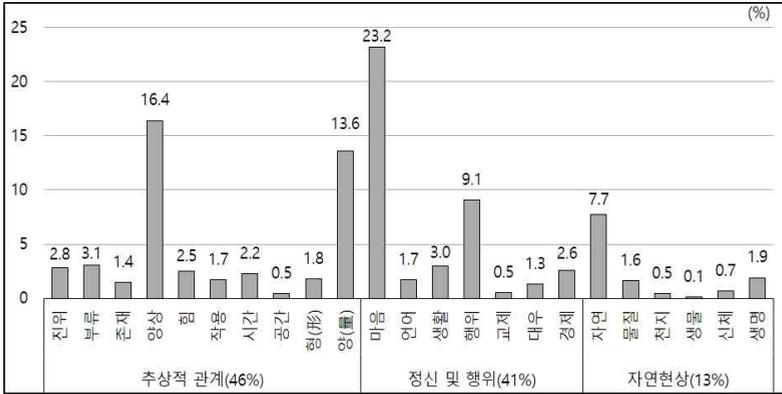
것이다. 반면에 주거 공간의 개선 관련 명사가 집중 출현하였을 때는 그만큼 다채로운 형용사의 사용이 수반되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각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기술한 형용사 사용의 양적 변화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

이 절에서는 말뭉치에 출현한 형용사의 유형을 의미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형용사 어휘가 각각 의미체계 상에서 어떤 범주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말뭉치 내 형용사가 나타내는 특징적인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는 두 맥락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인데, 하나는 말뭉치 속 형용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형용사를 대상으로 의미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시기별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형용사 목록을 추출한 뒤 개별 시기의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형용사는 전체 세계를 의미적 차원에서 분절한 시소러스의 분류 체계상 대분류 범주 기준으로 ‘추상적 관계’, ‘정신 및 행위’, ‘자연현상’ 세 개의 범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진위, 부류, 존재, 양상, 힘, 작용, 시간, 공간, 형, 양(추상적 관계)’, ‘마음, 언어, 생활, 행위, 교제, 대우, 경제(정신 및 행위)’, ‘자연, 물질, 천지, 생물, 신체, 생명(자연현상)’ 총 23개의 하위 범주로 나뉘게 된다.

우선, 형용사 어휘 1,518개 전체를 일본국립국어연구소 <분류어휘표> 체계의 대분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각 범주별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의 의미 범주별 분포

위의 <그림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주거문화 말뭉치 속 전체 형용사 중에는 ‘추상적 관계’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700개(46%) 유형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위’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628개(41%), ‘자연현상’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190개(13%)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중분류 단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정신 및 행위’ 범주의 ‘마음’ 항목에 해당하는 어휘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추상적 관계’ 범주의 ‘양상(16.4%)’과 ‘양(量)(13.6%)’, ‘정신 및 행위’ 범주의 ‘행위(9.1%)’, ‘자연현상’ 범주의 ‘자연(7.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항목들의 경우 3%이하의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시기별 형용사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각 시기의 어휘가 지니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개별 어휘의 빈도 정보를 바탕으로 다이버전스 공식을 활용하여 각 어휘의 다이버전스 수치를 도출하였고,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할만한 가치를 지니는 어휘들을 선별하였다. 여기서 개별 어휘가 지니는 다이버전스 수치는 특정 말뭉치 내에서 한 어휘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른 말뭉치들 내에서 그 어휘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교해 줄 수 있는 값으로, 특정 어휘의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 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한 다이버전스 수치 순위 50위까지의 어휘 목록이다.

<표 4> 시기별 다이버전스 수치 상위 어휘(5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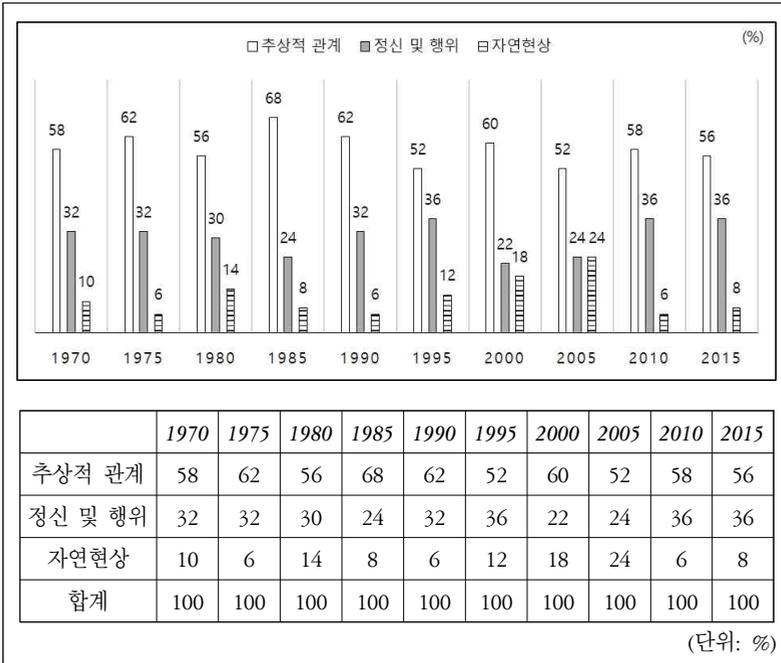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	이러하다	필요하다	크다01	싸다05	가능하다	멋지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다양하다01	독특하다
2	무섭다	이러하다	바람직하다	비싸다	크다01	가능하다	자연스럽다	고급스럽다	넓다	다양하다01
3	크다01	편리하다	심하다	새롭다	높다	아름답다	작다01	로맨틱하다	은은하다02	작다01
4	편리하다	크다01	불결하다	활발하다	시원하다	단순하다	넓다	화사하다02	편안하다01	예쁘다
5	필요하다	단란하다	덥다01	상당하다02	뛰어나다	재미있다	세련되다	색다르다	고급스럽다	낯설다
6	새롭다	어렵다	높다	값싸다	수려하다	산뜻하다	좁다01	지저분하다	행복하다	넓다01
7	어렵다	비싸다	아름답다	바람직하다	유리하다01	화사하다02	시원하다	편안하다01	짙다	재미있다
8	심하다	쉽다	어렵다	엄청나다	부드럽다	진하다01	고급스럽다	화려하다	편하다	만족스럽다
9	가난하다	아름답다	알맞다	강하다01	쾌적하다	넓다	예쁘다	은은하다02	단순하다	어리다03
10	그려하다	깨끗하다	번거롭다	심하다	바람직하다	밝다	투명하다02	우아하다	멋스럽다	과하다02
11	알맞다	즐겁다	늦다	험겁다	완벽하다	빨갳다	화사하다02	멋스럽다	복잡하다	커다랗다
12	일정하다	차갑다	쉽다	비슷하다02	위험하다	다양하다01	밝다	깨끗하다	달콤하다	특별하다
13	미안하다	아담하다	이러하다	약하다01	시원스럽다	화려하다	편안하다01	세련되다	담백하다	자유롭다
14	어떠하다	더럽다	춥다	높다	녹녹하다	부드럽다	간단하다02	작다01	과감하다01	바쁘다
15	좁다02	명랑하다	엄청나다	밝다	치열하다02	독특하다	질다02	강렬하다02	유용하다01	완벽하다
16	덥다01	현명하다01	자랑스럽다	알맞다	이러하다	아기자기하다	넓다01	넉넉하다	높다	거칠다
17	나쁘다01	따뜻하다	불가피하다	두껍다	손쉽다	거칠다	산뜻하다	고풍스럽다	가능하다	괜찮다
18	습하다01	가깝다	순조롭다	동일하다	희다	편안하다01	다양하다01	강하다01	커다랗다	싱그럽다
19	즐겁다	심하다	무미건조하다	가난하다	훌륭하다	싸다05	아늑하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안락하다
20	얇다	손쉽다	맑다01	충분하다01	뜨겁다	열다01	차분하다01	아기자기하다	풍성하다	따스하다
21	짧다	뜨겁다	세다03	신선하다03	빠르다	따뜻하다	척척하다02	밋밋하다	안락하다	부담스럽다
22	늦다	막대하다	청결하다01	우수하다02	조그맣다	세련되다	화려하다	다양하다01	경쾌하다	남다르다
23	위험하다	값비싸다	따뜻하다	가능하다	활발하다	쾌적하다	독특하다	환하다01	여유롭다	소중하다
24	더럽다	조그마하다	깨끗하다	편리하다	적절하다	단조롭다	편하다	쉽다	웅장하다	닐찍하다
25	철저하다	따끈하다	깊다	부드럽다	확실하다	시원스럽다	이롭다	넓다	목적하다	다채롭다
26	곤란하다	뚱다	빠르다	가깝다	철저하다	다르다01	환하다01	밝다	익숙하다	흥미롭다
27	호트하다	질기다	더럽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비슷하다02	가득하다01	따뜻하다	기특하다	손색없다
28	급하다	다르다01	지나치다	가볍다	용이하다	깔끔하다	로맨틱하다	아늑하다	끈끈하다	허름하다
29	맛있다	맑다01	안타깝다	쾌적하다	값싸다	우아하다	하얗다	자연스럽다	덩그렇다	가든하다
30	시끄럽다	유용하다01	싱싱하다	똑같다	푸르르다	저렴하다	셀럽하다	사랑스럽다	독실하다	중요하다02
31	서글프다	대담하다01	과람다	조그맣다	올바르다	하얗다	연하다01	예쁘다	중요하다02	다르다01
32	점잖다	귀중하다01	비좁다	푸르르다	불과하다	뛰어나다	가볍다	저렴하다	길다02	가득하다01

33	음침하다	힘들다	막대하다	무뎛하다	신중하다	귀엽다	지저분하다	특별하다	건강하다02	강렬하다02
34	밀접하다	홀륭하다	귀하다	불과하다	허름하다	복잡하다	싱그럽다	자잘하다	만만하다01	유명하다01
35	다행하다	적합하다	만족하다	웬만하다	단란하다	부족하다	부담스럽다	폭신하다	건조하다02	궁금하다01
36	중요하다02	무난하다	지혜롭다	광범위하다	무성하다	밋밋하다	큼직하다	폭신하다	잔잔하다01	분명하다01
37	간단하다02	섬세하다	쓸모없다	크다01	허다하다	싱그럽다	길다02	알록달록하다	궁금하다01	노후하다01
38	완전하다01	적절하다	축축하다	적당하다02	부지런하다	똑같다	진하다01	보송보송하다	소소하다01	달다07
39	뻘하다02	틀림없다	자그마하다	정확하다01	술하다	중후하다	쉽다	괴괴하다	위대하다01	가능하다
40	쉽다	아프다	미지근하다	유리하다01	결맞다	안타깝다	깨끗하다	탁월하다	화려하다	가깝다
41	가볍다	치밀하다	서운하다	멀다02	신비스럽다	양증맞다	부드럽다	만만하다01	아늑하다	멋지다
42	안전하다	불쾌하다	유능하다	고르다03	열악하다	남다르다	낮다	칭걸하다01	자연스럽다	저렴하다
43	굵다	대단하다	고달프다	충실하다01	빈번하다	소중하다	커다랗다	선명하다02	안전하다	손쉽다
44	적합하다	호화롭다	무관심하다	양호하다01	양증스럽다	간결하다	우아하다	부드럽다	자유롭다	쾌적하다
45	흔하다	영원하다	그렇듯하다	안전하다	불투명하다	썰렁하다	멋지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멋스럽다
46	바쁘다	울퉁불퉁하다	흡족하다	뛰어나다	쿨쿨하다	묘하다	색다르다	커다랗다	따스하다	부족하다
47	아프다	매끄럽다	열미다	홀륭하다	오밀조밀하다	친근하다	저렴하다	멋지다	밋밋하다	깊다
48	아쉽다	동등하다	별절다	무난하다	억울하다	푸근하다	답답하다	산뜻하다	흔하다	경쾌하다
49	가늘다	착실하다	경솔하다	빠르다	무책임하다	작다01	평범하다	어둡다	넉넉하다	밋밋하다
50	알뜰하다	영성하다	곱디02	드물다	적잖다	좁다01	무난하다	뛰어나다	컬러풀하다	행복하다

위의 목록을 대상으로 각 어휘의 의미범주별 어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추상적 관계’ 범주에 가장 많은 어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거의 모든 시기에서 ‘정신 및 행위’ 범주에 비교적 많은 어휘가 분포하고 있었다. ‘자연현상’ 범주는 앞의 두 범주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적은 수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2000년의 경우 ‘정신 및 행위’ 범주의 어휘 분포량과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2005년의 경우 동일한 분포량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전체 형용사를 대상으로 각 범주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그 순서가 ‘추상적 관계-정신 및 행위-자연현상 범주’ 순이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구체적인 분포 비율 수치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추상적 관계’ 범주와 ‘정신 및 행위’ 범주 간의 양적 차이가 5%에 불과했으나 각 시기별 목록 분석 결과에서는 많게는 44%, 적게는 16%까지로 평균 28%의 격차를 보였

고, ‘추상적 관계’ 범주와 ‘자연현상’ 범주 간에는 전체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33%였던 간극이 시기별 목록 분석 결과에서 역시 많게는 60%, 적게는 28%로 평균 47% 정도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추상적 관계’ 범주에 어휘가 집중 분포하는 양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추상적 관계	58	62	56	68	62	52	60	52	58	56
정신 및 행위	32	32	30	24	32	36	22	24	36	36
자연현상	10	6	14	8	6	12	18	24	6	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그림 4> 시기별 다이버전스 값 상위 어휘의 의미 범주별 분포(대분류)

위의 결과를 중분류 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이 거의 모든 시기에서 ‘추상적 관계’ 부류의 ‘양상’과 ‘양’ 항목, ‘정신 및 행위’ 부류의 ‘마음’ 항목에 상당수의 어휘가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연현상’ 부류의 ‘자연’ 항목의 경우는

전체 시기에 고르게 어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0, 2005년의 목록에 어휘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시기별 다이버전스 값 상위 어휘의 의미 범주별 분포(중분류) (단위: %)

대분류	중분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추상적 관계	진위	6	2	4	0	4	0	0	0	2	0
	부류	4	8	2	10	0	6	4	4	2	4
	존재	0	0	2	0	0	4	2	0	2	0
	양상	28	30	20	22	24	28	34	32	26	26
	힘	2	4	2	4	2	2	0	2	0	2
	작용	0	2	0	6	4	2	0	4	0	0
	시간	2	0	2	4	6	0	4	0	4	6
	공간	0	0	0	0	0	0	0	0	0	0
	형(形)	0	2	0	0	0	0	0	0	0	0
	양(量)	16	14	24	22	22	10	16	10	22	18
정신 및 행위	마음	22	12	16	10	20	22	12	14	26	18
	언어	0	2	2	2	2	4	2	2	0	2
	생활	6	2	0	0	2	2	2	4	2	4
	행위	0	6	10	6	6	4	4	2	6	8
	교제	0	0	0	0	0	0	0	0	0	0
	대우	0	0	0	0	0	0	0	0	0	0
	경계	4	10	2	6	2	4	2	2	2	4
자연 현상	자연	2	2	6	0	4	8	12	18	2	6
	물질	4	4	6	0	0	0	0	2	2	0
	천지	0	0	0	0	0	0	0	0	0	0
	생물	0	0	0	0	0	0	0	0	0	0
	신체	0	0	0	0	0	2	2	2	0	2
	생명	4	0	2	8	2	2	4	2	2	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차별적 출현 어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주요 항목인 ‘양상’, ‘양’, ‘마음’, ‘자연’ 네 항목의 어휘들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추상적 관계-양상

‘추상적 관계’ 부류의 ‘양상’ 항목은 차별적 출현 어휘 목록에서 가장 많은 어휘가 분포하고 있는 범주이다. ‘양상’ 항목에는 느낌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어휘에서부터 특징, 좋고 나쁨, 알맞음과 알맞지 아니함과 같은 적부, 조화와 혼란, 이완·조밀·번잡의 정도, 아름다움과 추함, 쉽고 어려움과 같은 난이, 안전함과 위태로움과 같은 안위에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적 출현 어휘의 분류 결과에 따르면 양상 항목에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분류되었다.

- 1970 어렵다, 쉽다, 가볍다, 혼하다, 알맞다, 적합하다, 가늘다, 더럽다, 편리하다, 위험하다, 곤란하다, 급하다, 간단하다, 안전하다
- 1975 어렵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쉽다, 적합하다, 무난하다, 적절하다, 깨끗하다, 치밀하다, 영성하다, 아름답다, 더럽다, 섬세하다, 편리하다, 손쉽다
- 1980 어렵다, 쉽다, 무미건조하다, 알맞다, 세다, 지나치다, 깨끗하다, 불결하다, 아름답다, 더럽다
- 1985 훌륭하다, 가볍다, 드물다, 알맞다, 양호하다, 무난하다, 고르다, 험겁다, 가능하다, 편리하다, 안전하다
- 1990 훌륭하다, 적절하다, 걸맞다, 열악하다, 허다하다, 오밀조밀하다, 수려하다, 가능하다, 위협하다, 손쉽다, 불가능하다, 용이하다
- 1995 멋지다, 단조롭다, 독특하다, 밋밋하다, 남다르다, 깔끔하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다양하다, 간결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우아하다, 가능하다
- 2000 멋지다, 자연스럽다, 독특하다, 가볍다, 쉽다, 평범하다, 부담스럽다, 무난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다양하다, 예쁘다, 화려하다, 지지분하다, 우아하다, 간단하다, 편하다
- 2005 멋스럽다, 멋지다, 독특하다, 밋밋하다, 쉽다, 자연스럽다, 특별하다, 자갈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다양하다, 지지분하다, 화려하다, 우아

하다, 예쁘다, 만만하다

2010 멋스럽다, 특별하다, 자연스럽다, 맛있다, 혼하다, 복잡하다, 다양하다, 단순하다, 화려하다, 편하다, 가능하다, 만만하다, 안전하다

2015 멋지다, 멋스럽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남다르다, 맛있다, 과하다, 괜찮다, 부담스럽다, 다양하다, 예쁘다, 가능하다, 손쉽다

위의 어휘를 보면 양상 범주에 포함된 어휘는 위생과 안전, 편리와 적합성, 난이함,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초반에는 위생과 안전, 편리와 적합성, 난이함과 관련한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면 점차 아름다움이나 좋고 나쁨과 관련한 어휘가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추를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 1970년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지만 1975~1990년 범위에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수려하다’가 등장하고, 1995년부터는 ‘화려하다’, ‘멋지다’, ‘멋스럽다’, ‘우아하다’, ‘섬세하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등의 다양한 긍정적 평가 어휘로 확장되었으며, ‘맛있다’, ‘부담스럽다’, ‘과하다’ 등의 부정적 느낌의 어휘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1970, 1975, 1985, 1990 네 시기에 지속적 출현했던 편리와 용이함 관련 어휘는 1995년 이후의 목록부터는 출현하지 않았다.

2) 추상적 관계-양(量)

‘추상적 관계’ 부류의 ‘양(量)’ 항목은 양의 많고 적음, 길고 짧음, 높고 낮음, 폭, 깊이, 원근, 넓고 좁음, 크고 작음, 속도, 경중, 따뜻함과 차가움, 정도나 한도, 과함과 부족함, 전체와 부분 등의 정도성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적 출현 어휘의 분류 결과에 따르면 ‘양(量)’ 항목에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분류되었다.

1970 얇다, 짧다, 크다, 굵다, 늦다, 무섭다, 철저하다, 완전하다

1975 막대하다, 착실하다, 크다, 아담하다, 조그마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 1980 막대하다, 흡족하다, 높다, 깊다, 크다, 비좁다, 자그마하다, 늦다, 좁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엄청나다
- 1985 높다, 두껍다, 조그맣다, 광범위하다, 크다, 상당하다, 엄청나다, 불과하다, 웬만하다, 적당하다, 충분하다
- 1990 무성하다, 슬하다, 적잖다, 높다, 크다, 조그맣다, 시원하다, 불과하다, 완벽하다, 시원스럽다, 철저하다
- 1995 넓다, 좁다, 따뜻하다, 시원스럽다, 부족하다
- 2000 가득하다, 낫다, 넓다, 좁다, 큼직하다, 커다랗다, 답답하다, 시원하다
- 2005 넉넉하다, 넓다, 커다랗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 2010 풍성하다, 소소하다, 넉넉하다, 높다, 넓다, 커다랗다, 웅장하다, 답답하다, 경쾌하다, 묵직하다, 따스하다
- 2015 가든하다, 가득하다, 깊다, 커다랗다, 널찍하다, 경쾌하다, 따스하다, 완벽하다, 부족하다

초반에는 주로 ‘크다’, ‘작다’, ‘높다’, ‘아담하다’와 같이 대상의 규모를 평면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비좁다’, ‘좁다’, ‘넓다’, ‘웅장하다’, ‘널찍하다’와 같이 공간의 부피를 표현하는 입체적 어휘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따뜻함과 차가움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온감 형용사의 경우에도 ‘차갑다’, ‘따뜻하다’와 같은 기본 표현에서 점차 ‘미지근하다’, ‘시원스럽다’, ‘따스하다’와 같이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3) 정신 및 행위-마음

‘정신 및 행위’ 부류의 ‘마음’ 항목에는 마음, 감동과 흥분, 배고픔, 취기, 피로, 수면, 즐거움과 기쁨, 두려움과 노여움, 안심과 초조, 만족, 고뇌와 비애, 좋고 싫음과 애증, 경의와 감사, 신뢰, 표정과 태도, 신념과 노력, 인내, 자신과 창피, 욕망, 기대와 실망, 의지, 판단과 평가, 상세함과 정확함, 이상함, 의미와 취지 등과 같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가 포함될 수 있다. 차별적 출현 어휘의 의미분류를 통해 ‘마음’ 항목에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분류되었다.

- 1970 아프다, 즐겁다. 흐뭇하다, 서글프다, 이쉽다, 시끄럽다, 음침하다, 미안하다, 뻘하다, 알뜰하다, 중요하다
- 1975 아프다, 즐겁다, 불쾌하다, 힘들다, 단란하다
- 1980 고달프다, 서운하다, 만족하다, 번거롭다, 바람직하다, 안타깝다, 열피다, 자랑스럽다
- 1985 쾌적하다, 힘들다, 바람직하다, 충실하다, 뚜렷하다
- 1990 쾌적하다, 억울하다, 바람직하다, 단란하다, 양중스럽다, 부지런하다, 확실하다, 신중하다, 불투명하다
- 1995 재미있다, 산뜻하다, 아기자기하다, 쾌적하다, 싱그럽다, 편안하다, 푸근하다, 귀엽다, 안타깝다, 양중맞다, 친근하다
- 2000 산뜻하다, 아늑하다, 싱그럽다, 편안하다, 어둡다, 로맨틱하다
- 2005 아기자기하다, 아늑하다, 산뜻하다, 편안하다, 사랑스럽다, 어둡다, 로맨틱하다
- 2010 달콤하다, 건조하다, 아늑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여유롭다, 궁급하다, 끈끈하다, 기특하다, 담백하다, 자유롭다, 중요하다, 익숙하다
- 2015 재미있다, 싱그럽다, 흥미롭다, 쾌적하다, 만족스럽다, 안락하다, 궁급하다, 자유롭다,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서글프다’, ‘이쉽다’, ‘음침하다’, ‘힘들다’, ‘불쾌하다’와 같이 두려움이나 노여움, 고뇌와 비애 등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감정 표현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즐거움과 기쁨, 안심과 만족 등을 표현하는 ‘쾌적하다’, ‘재미있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싱그럽다’, ‘사랑스럽다’, ‘달콤하다’, ‘흥미롭다’, ‘만족스럽다’, ‘자유롭다’, ‘로맨틱하다’ 등의 긍정적 감정과 느낌의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4) 자연환경-자연

‘자연환경’ 부류의 ‘자연’ 항목은 차별적 출현 어휘 목록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어휘가 분포하고 있는 범주이다. ‘자연’ 항목에는 자연, 빛, 색, 소리, 냄새, 맛, 재질 등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차별적 출현 어휘의 의미분류를 통해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분류되었다.

1970 맛있다, 곱다

1975 묽다

1980 파랗다, 별장다, 곱다

1985 밝다, 푸르르다

1990 희다, 쿼쿼하다, 푸르르다

1995 진하다, 빨갳다, 하얗다, 옅다, 밝다

2000 환하다, 하얗다, 연하다, 진하다, 투명하다, 질다, 밝다, 칙칙하다

2005 강렬하다, 선명하다, 환하다, 알록달록하다, 은은하다, 괴괴하다, 폭신하다, 폭신하다, 밝다

2010 은은하다

2015 강렬하다, 분명하다, 다채롭다

앞의 세 항목과는 달리 ‘자연’ 항목은 어휘의 분포가 시기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고, 주로 2000년과 2005년의 목록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의미적으로는 초기에 빛의 밝기나 색의 채도와 명도 등을 표현하는 어휘, 특정 색을 지칭하는 어휘 등 주로 대상이 지니는 시각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휘가 많았다면, 점차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느낌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로 다양화되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 한국의 주거 감성을 파악하고자 대중잡지 주거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주거문화 말뭉치의 형용사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45년 범위의 10개 말뭉치를 대상으로 통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각 시기 말뭉치의 양적, 의미적 특성을 밝히고 변화의 양상을 논의하였다.

우선, 주거문화 말뭉치 형용사 사용 양상을 양적 기준에서 살펴본 결과, 1970~1980년 구간에는 형용사가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1985~2005년 구간에는 사용된 형용사의 유형 수가 감소하였고, 2010년과 2015년 구간에서는 비록 소폭이지만 다시 사용된 형용사의 유형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미분류를 통해 형용사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거문화 말뭉치에서는 대분류 ‘추상적 관계, 정신 및 행위, 자연현상’ 세 범주 중 추상적 관계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정신 및 행위 범주의 어휘도 추상적 관계 범주에 이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자연현상 범주는 앞의 두 범주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분류 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중분류 단계에서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서 각각의 분류 항목 중 ‘추상적 관계’ 부류의 ‘양상’과 ‘양’ 항목, ‘정신 및 행위’ 부류의 ‘마음’ 항목에 어휘가 대거 집중되어 있었고, ‘자연현상’ 부류의 ‘자연’ 항목 역시 그 분포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기에 많은 어휘가 집중되어 있어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위생과 안전, 편리와 적합성, 난이함,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휘들이 주를 이루었던 ‘양상’ 범주에서는 초반에 위생과 안전, 편리와 적합성, 난이함과 관련한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점차 아름다움이나 좋고 나쁨과 관련한 어휘가 세분화되는 경향을 포착할 수 있었다. ‘양’ 범주에 포함된 어휘들의 경우, 초반에는 주로 ‘크다’, ‘작다’, ‘높다’, ‘아담하다’와 같이 대상의 규모를

평면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비좁다’, ‘좁다’, ‘넓다’, ‘웅장하다’, ‘널찍하다’와 같이 공간의 부피를 표현하는 입체적 어휘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따뜻함과 차가움 등의 느낌과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에도 단적인 느낌의 표현에서 점차 ‘시원하다’, ‘시원스럽다’, ‘따스하다’와 같이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 범주에서는 초반에는 ‘서글프다’, ‘아쉽다’, ‘음침하다’, ‘힘들다’, ‘불쾌하다’와 같이 두려움이나 노여움, 고뇌와 비애 등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어휘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즐거움과 기쁨, 안심과 만족 등을 표현하는 ‘쾌적하다’, ‘재미있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싱그럽다’, ‘사랑스럽다’, ‘달콤하다’, ‘흥미롭다’, ‘만족스럽다’, ‘자유롭다’, ‘로맨틱하다’ 등의 긍정적 감정과 느낌의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연’ 범주에서는 초기에 빛의 밝기나 색의 채도 및 명도와 관련하여 대상이 지닌 시각적 특성을 표현하는 어휘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사람이 갖게 되는 느낌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어휘로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거문화와 감성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언어를 활용한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주거 감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의 목적과 범위상 개별 어휘 각각의 용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논의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말뭉치 연구 분야에서 한국인의 주거 감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어 보다 종합적인 결론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언어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 강소영,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문화지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이화어문논집』 24·25, 2007, 181~208쪽.
- 강인호·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000.
- 김영주 외,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 선행연구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4, 2013, 104~112쪽.
- 김유나 외, 「내용분석을 통한 전원생활 및 전원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1, 2013, 275~296쪽.
- 김일환, 「텍스트 유형과 어휘의 사용 빈도」, 『언어와 정보사회』 19, 2013, 161~201쪽.
- 김하수 외, 「정치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시론」, 『담화와인지』 20-1, 2013, 79~111쪽.
- 김태수, 『분류의 이해』,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 레이먼드 윌리엄스, 나영균 역, 『문화와 사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 박진희, 「주거 공간과 '일상'의 관계 맺기-주거 공간에 담긴 현대인의 일상, 그 변화와 의미 들여다보기」, 『시민과세계』 24, 2014, 258~273쪽.
- 손현정·이재윤, 『담화의 언어정보학적 탐구』, 박이정, 2014.
- 오운정, 「여성잡지 말뭉치에 나타난 한국 주거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오운정, 「주거문화 말뭉치를 통해 본 어휘 변천: 명사 어휘의 의미분류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24-3, 2020, 27~46쪽.
- 오진환, 『잡지발전 세미나 자료집』, 한국잡지협회 부설 한국잡지연구소, 1990.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우신구·정순원, 「잡지의 주거재현방식에 관한 연구-건축잡지와 여성잡지의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2007, 1~10쪽.

- 은난순, 「1980년대 이후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재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004, 59~73쪽.
- 이정민 외, 『언어학사전』, 박영사, 2000.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 1997.
- 임지룡,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2018.
-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 장원재, 「현대 한일 동형한자어의 의미분야 형성-소분류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8, 2005, 93~114쪽.
-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 정순원·우신구, 「잡지를 통해 전달되는 주택의 인식에 대한 연구-건축전문잡지와 여성생활문화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04, 131~134쪽.
- 제넥 썬즈만, 김형중 역, 『언어, 문화, 사회』, 온누리, 2006.
- 토니 매케너리·앤드류 하디, 최재웅 역, 『코퍼스 언어학: 방법·이론·실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통계청, 2015.
- 한유석, 『일한 분류어휘비교』, 한국문화사, 2010.
- Yoonjung Oh,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Residential Culture in the Corpus of Women's magazine," *Collana di Studi Coreani vol.3*, Roma : Aracne editrice, 2018, pp.75-105.

CONTEMPORARY KOREAN RESIDENTIAL SENSIBILITY
REPRESENTED IN THE CORPUS

OH YOONJUNG (OH, YOON JUNG)

This research concerns the contemporary residential culture in South Korea in a diachronic approach. The methodology for the study is corpus analysis based on a quantitative linguistics approach. The basic data for this research includes articles related to the residence in the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issues of five different popular magazines: *Chubusaenghwal* (*Housewives Living(STYLER)*), *Yŏsŏngdonga* (*Women's Dong-A*), *Yŏsŏng-jungang* (*Women's JoongAng*), *Yŏwŏn* (*Yeowon*), and *Haengbogi kadŭk'an chip* (*A Home Full of Happiness*). Articles from 1970 to 2015 at five-year intervals are extracted and used for building a corpus "Korean Contemporary Residential Corpus (KCRC)." The raw corpus was built including 565,824 words, and after morphological analysis and eliminating stop words, a list of content words was accomplished including type 31,214 and token 492,211. Specifically, only adjectives of the corpu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For extracting the lists of the words, which have values to be analyzed, from the corpus, 'Kullback-Leibler divergence formula' was applied, and the lists were analyzed by 'Bunruigoihyo(分類語彙表)' which is one of the thesaurus system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ovides a new research methodology in cultural studies.

잡지 말뭉치에 나타난 한국의 주거 감성 분석

Key Words : Residential Culture, Sensibility, Corpus Analysis, Adjective, Semantic Classification, Magazine